

해피밀 시즌 3-9를 발간하며, 새로운 계절과 함께 전도서를 맞이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고후 5:17).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세상의 것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나병환자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후, 제사장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눅 17:15-16).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함께 묵상하게 될 전도서가 그러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전도서의 지혜로운 권면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해피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더욱 깊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2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Paul Jung'.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진정한 친구

우정이란 친구를 향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상대의 잘됨을 바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또는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하지만 우정의 중요성에 비해 이 시대에서 진정한 우정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내가 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집 자식들보다 우리 자식이 더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우정의 가치는 현대 사회의 눈에 어쩌면 무척 고리타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고해서 우정의 중요성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정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정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끌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정을 가장 잘 표현해준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과의 우정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도 그런 요나단을 깊이 사랑했고, 요나단의 사후에 그의 아들을 정성껏 돌보며 우정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음을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우리의 곁에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우정을 나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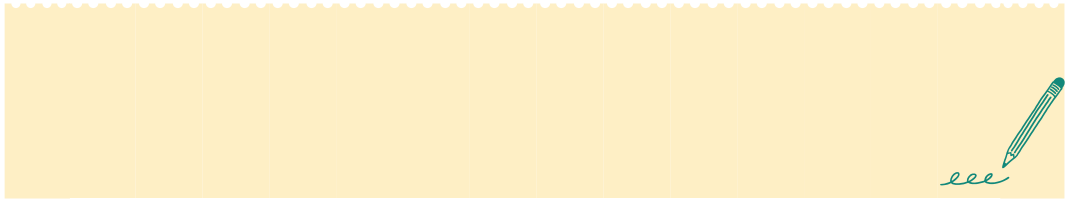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어떤 위안을 주니까?

Q. 오늘 하루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겸손하게 사는 법

겸손하게 사는 법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을 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세기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는 교만함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아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첫 걸음이라던지, 경쟁적인 악이라던지, 영적인 암이라던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라면 응당 루이스의 표현에 쉽게 수긍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사는 법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적 동의와 별개로 교만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 이유가 자신의 잘남에 있다고 착각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우리의 겸손한 태도에도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교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도록 속삭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참으로 풀기 힘든 죄사슬과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태어 혹자는 말합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한 것을 가리킵니다. 첫 인류는 교만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유서 깊은 죄이자 몹시도 뿌리 깊은 악입니다. 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교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교만함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겸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묵상해봅시다. 그분은 우리와 경쟁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길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누르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어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존귀의 길잡이이십니다.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겸손하게 사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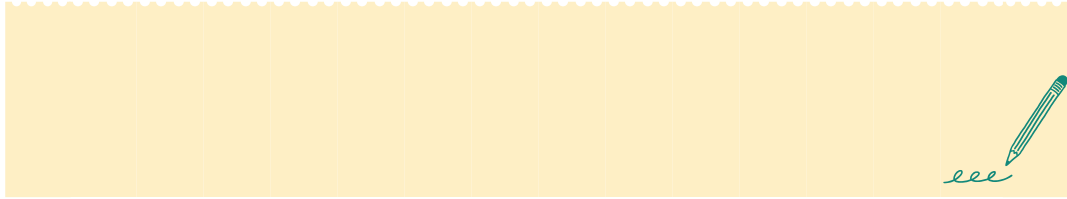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나와 타인에게 아픔을 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Q.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해봅시다.

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한 통계에 따르면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로 인한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꼬인 문제들을 풀어보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해보지만 실패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우리의 일상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여호와와 뜻만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뜻은 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흔히 '예정'과 '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예정의 경우 인간의 구원에 한정됩니다. 작정은 그보다 넓습니다. 피조계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의 지경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고, 하나님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신가요? 그렇다면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손에 팔린 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험겨운 옥살이, 믿었던 사람의 배신, 점점 잊혀져가는 것, 구조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은 현실의 압박함을 매일 맞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만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에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었나요?

Q.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7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정직한 자가 받는 복**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손해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정직한 삶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후손에게도 복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며, 후손이 받을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정직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 특히 자녀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춘기 자녀 혹은 여러분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외식적인 행위로는 자녀에게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 앞에서도 늘 한결 같다면 그는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미치게 됩니다. 그 복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신앙)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과 정직한 삶은 곧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만연했던 불의함으로 인해 좌절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종교를 섬기던 자에서 믿음의 조상 되었듯이,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 되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점점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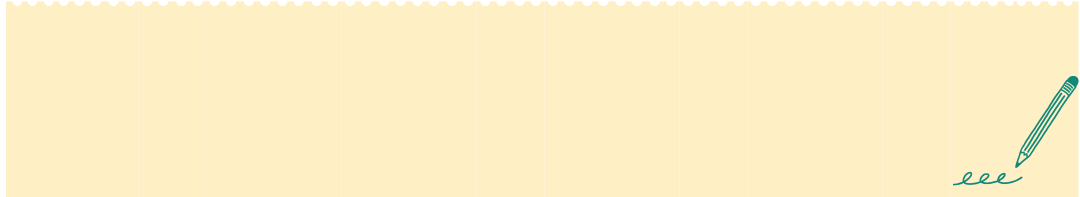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Q. 이런 나조차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해봅시다.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마음을 보시는 주님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의 편을 들어주고 싶고, 다른 아이보다는 내 아이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사정보다는 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설령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흠이 없고 의로워도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오해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장남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고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그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6:6-7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에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중심은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은 나의 위선만을 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진실함도 아시고 억울함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에게 주님의 감찰하심은 두려움이 되겠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말씀을 듣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곧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들을 되새겨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에 청종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힘을 구합니다.

2025년 3월 1일 (토)

온 가족 <잠언 17장> 묵상하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잠언 17:17-20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0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 잠언 17:17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드'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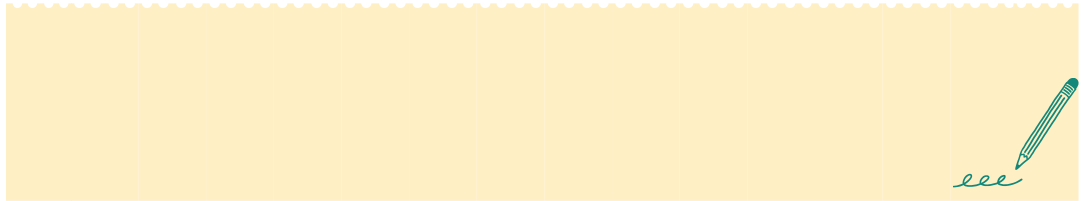


잠언 17장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다**

잠언은 우리에게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않습니다. 다만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와 은총입니다(1절). 명예의 사전적 의미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한 사람의 존재와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전인적인 모든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등한 자, 평등한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눈이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9절).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로부터 요구하십니다.

반대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에게 내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그로 인해 얻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너무 하나님께만 집중한 나머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Q. 혹여나 내가 얻고 있는 유익 중에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있지 않습니까?

29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결국 술은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술에 대한 많은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식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문화였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의 문화에선 피곤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치맥(치킨의 맥주)을 찾는 듯한 음주 문화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는 자가 빠지게 되는 여섯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재앙'과 '근심'은 술을 마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처한 문제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곤 하지만, 그러나 잠시 취하여 잊을 뿐이지 지금 처한 재앙과 근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쟁'과 '원망'은 술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조용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분쟁과 원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은 술취한 자의 몸에 남는 흔적입니다. 취하여 이곳저곳 넘어지고 부딪히다 보면 상처와 멍이 생깁니다. 그리곤 초점이 사라진 흐릿명한 붉은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술의 유혹은 상당히 매력적이며 이겨내기 힘들다고 말씀합니다(31절). 그러므로 술과 적당한 선을 두고 타협하며 즐길 것이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술의 문화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를 안하시는 분들은 술을 '죄악'으로 여겨보시며 묵상해보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결국 술(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술은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33-35절 말씀을 보면 판단력과 목표를 상실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여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제력 또한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계속해서 술을 찾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판에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제력을 상실함으로 지은 죄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죄악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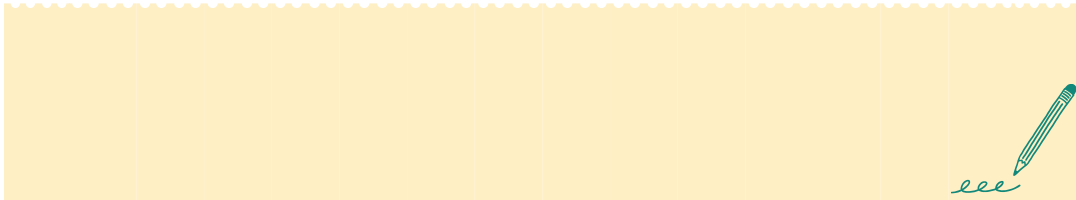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음주나 혹은 치명적인 죄의 유혹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Q. 내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악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지 오래 되어 이제는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타협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27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28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정직하게 일하고 타당하게 벌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집을 세우고 가정을 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일을 계획적으로 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가 가정을 꾸리고 이끌기 위해서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 에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선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으로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봐 정직한 대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삶의 터전에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임하고 타당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불의를 일으킴으로 부당한 자리를 꺾어서는 안됩니다.

29절에선 누군가로부터 불의를 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12:21).

선을 행하되, 이 선을 내 안의 착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대적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정직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나의 수입에 대하여 한 치의 부끄럼이 없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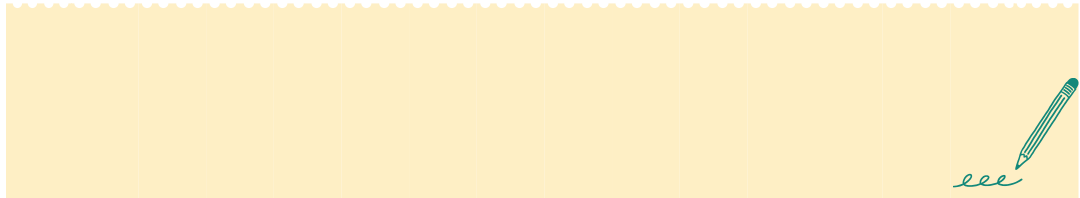
Q.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오는 악을 이겨내시되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선함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읽기

2025년 3월 6일 (목)

잠언 25장 16-17, 27-28절

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좋은 게 좋은 건가?**

오늘 본문에선 절제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선 달달한 간식거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선 꿀은 바위틈이나 수풀 등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기에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기에 꿀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큰 기쁨이자 유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꿀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꿀을 먹긴 먹되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서 토를 합니다(16절). 즉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지나치게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권면합니다.

17절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집에 방문하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방문하게 될수록 상대방의 사생활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피해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유익이 있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에 중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28절). 성문과 성벽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막이 없을 시 적들이 아무 때나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열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여 멈추어야 하는 선에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 임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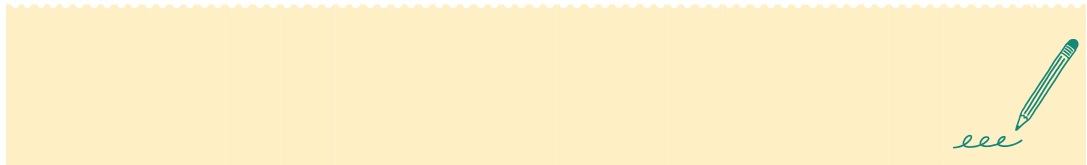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 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Q. 주변을 돌아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 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7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지 나무 같으니라 10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여름의 눈과 추수때의 비

자기바게 모르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련함과 영광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1절). 즉 미련한 자는 결실을 방해하고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고, 열매 없는 삶이 되게 합니다. 미련한 자가 일시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그 자신과 여러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공동체에 지도자나 리더가 되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종종 저주로 상대방을 겁박할지라도, 그 저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절). 왜냐하면, 그 저주는 말쑥에 근거하지 않은 즉흥적인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예가 아니라 체벌입니다(3절). 즉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통제와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만큼 미련함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최상의 방어는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최상의 공격은 반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탄과 하와처럼, 미련한 주장에 호응하다가 한 통속이 됩니다.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리석은 말마다 확실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어설픈 반박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신념만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주셨던 지혜와 담대함과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동용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Q. 미련한 자와 한 통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미련한 자가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소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26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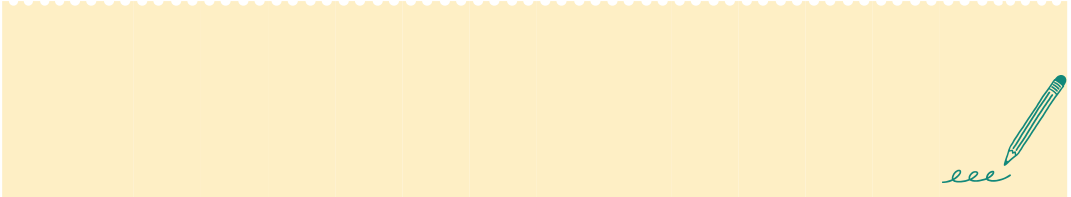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잠언 26장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굳건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승리해요!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대자랑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할 거리들을 찾고, 자랑하기 위해서 분주히 애씁니다. TV에 나온 맛집을 찾아가는 것,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음식점을 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랑을 잘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십 년이 넘도록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 자랑함이 자신의 스펙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디프로필을 촬영하며 자신의 육체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의 시대 속에 오늘 성경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우리는 성경적인 자랑함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 자랑을 금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나의 자랑거리가 될 그 내일 일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될 일을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손쉽게 자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투자가 치가 높아질 것이라, 앞으로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나는 승진할 것이라 너무나도 순진하게 확신하며 그러한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때론 오늘 자랑한 일이 내일의 부끄러움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늘 확실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시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23-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 그것은 자랑하여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질 때 그러한 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주님의 확고부동한 뜻과 일치하는 그 일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은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자랑은 확고부동한가요?

Q.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사자 같이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보이는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빌 1:27-28)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한 직후 수치감과 모멸감에 하나님께서 그저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자아내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얼굴을 숨기기 바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정의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함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은 설 때에 이러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는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심을 그분은 인해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사자 같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개를 조아립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가 어찌 세상의 다른 것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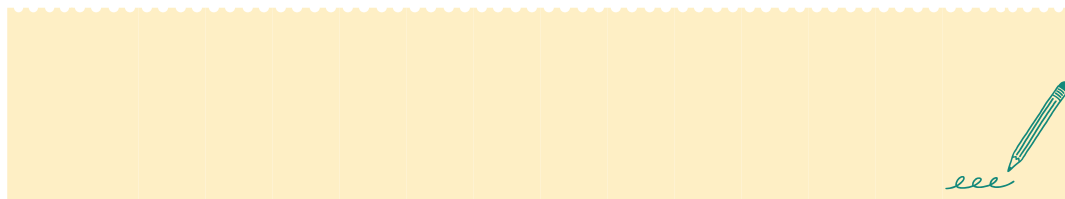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택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망하고 계신가요?

Q.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세상 앞에서 담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4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6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8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어느 덧 우리는 잠언의 후반부 끝자락에 닿아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참 좋은, 진정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은 적어두더라도, 아들의 목이 곧아(교만하여) 받아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곳곳에는 교만함이 아닌, 목이 곧음이 아닌, 고집이 아닌, 겸손함으로 청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교만과 완악함으로 목이 뻣뻣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패망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고난과 환난이기 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건 혹은 사고로 인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 옛날 출애굽기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이 뻣뻣하여 완악하게 거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의 삶에 다가온 장자의 죽음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속히 곧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완악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청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패망하기 전에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또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을 만한 귀가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곧은 목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한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Q.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싣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아굴의 잠언

우리는 지금 아굴의 잠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굴은 지금 자신의 비루한 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며, 짐승같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오히려 그의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지혜와 현명함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오늘은 합리와 효율이 지혜로 각광받는 시대이며, 명성과 인기도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의 지혜는 말 그대로 시대의 지혜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가 무용지물이며, 도리어 비열한 자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치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지만, 이것은 한 시대에 한정된 비루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절대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시대에 갇힌 존재입니다. 한 시절에 갇혀서 한 시절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유한성 앞에 아굴의 잠언은 매우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것, 총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 이 고백은 정말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굴은 이어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온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람을 운행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일으킨 분을 찾고 있습니다. 땅의 끝을 정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자가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온 자이며, 바다를 지으신 분이요, 땅의 끝을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늘 노력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깨우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그 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지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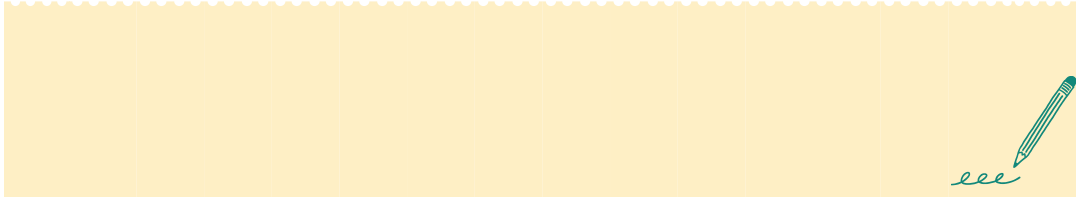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확신이 있습니까?

Q. 나의 철학, 삶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대비해봅시다.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기**

오늘 잠언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현명한 말들을 가르칩니다. 그중에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현숙한 행위 또한 우리에게 큰 격언이 되지만, 그러한 그녀를 향한 마지막 어머니의 갈무리 글은 묵상할 바가 큼니다.

30절에 보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외모는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외연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시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고, 세월에 따라 행하는 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외연이 지나고, 중고등의 외연도 지납니다. 이렇게 세월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쉽게 변하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연은 다 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칼빈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의 찡그림과 웃음보다 하나님의 찡그림과 웃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절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태도는 바로 이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우리는 이를 연습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친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늘 이러한 인생의 질문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길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연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도전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웃에게 칭송받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연습하고 계신가요?

Q. 하나님의 찡그림보다 사람의 찡그림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28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잠언 28장,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잠언 28장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하나님 앞에 사자 같이 담대하자

1. 3월 11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최근에 느끼고 있는 죄책감은 무엇인가요?

3.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4.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자같이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 없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답게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 작은 마음,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편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떠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11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최고로 허무함**

현대사회 직장인들은 참 바쁜 일상,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어나자마자 일터에 나가기 바쁩니다.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일터는 전쟁터입니다. 일은 늦은 시간까지 있습니다. 일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할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허무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 인생을 평가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표현은 헛됨이 최상급임을 나타냅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3절, 4-7절에 있습니다. 일평생 수고하지만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해도, 바람도, 강물도 결국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이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좋은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문득 허무한 생각이 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Q. 처음엔 흥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나보다 낫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으로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구멍난 항아리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서 한 주지스님은 스님들과 깡패들에게 퀴즈를 내주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구멍난 곳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아무리 움켜 쥐려고 해도 움켜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깡패들은 구멍난 항아리를 연못으로 던졌습니다. 항아리는 물 안에 잠기게 되며 결국 깡패들은 주지스님의 퀴즈를 풀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수행들은 오히려 독이 되어 퀴즈를 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에 탁월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분명 세상은 구부러졌습니다. 모자란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풀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가 많으면 많은 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근심만 더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혜자가 '헛되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며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헛되지 않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구부러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혜롭지 못한 길이었습니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사 우리의 구멍을 채우셨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보셨나요?

Q. 성경이 분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외면했던 적이 있나요?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희노애락**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노애락'입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얹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희희희희' 혹은 '락락락락'이라면 어떨까요? 노여움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한 켠에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 치킨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치킨이 맛있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매일 먹는 것은 곤욕일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미각을 갖고 있는 우리처럼 매일 기쁜 인생은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짜를 내고, 죄를 지으며 지금의 '희나 락'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좋은 곳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도자는 '쾌락(즐거움)'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이르기를 '쾌락하여 보자! 마음껏 쾌락하여 보자! 쾌락을 통해 의미를 찾아보자!' 그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쾌락'이 '웃음'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다른 묘수를 찾았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술'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찾아온 현실 앞에 그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영원히 '술'에서 깨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희노애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며 '희노애락'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노애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에 기쁘고 즐거웠던 경험이 있나요? 나눠 보세요.

Q. 최근에 노엽고 슬펐던 경험이 있나요? 나눠 보세요.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보람**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시간, 에너지, 돈, 마음 등을 투자를 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였지만 준비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크게 상심하곤 합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는 보람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 '보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고하여 씨를 뿌릴 때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전도자는 열매를 통해 '보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동산과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삼림과 못들을 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분명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비를 샀습니다. 가축도 샀습니다. 은과 금, 수많은 보배를 쌓았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자보다 창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점인 그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보람'은 해 위에 있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수고하여 이룬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여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몇 등하고 싶나요?**

어렸을 적 운동회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신나는 음악, 깔깔 거리는 웃음 소리, 만국기, 맛있는 간식들. 생각만해도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회의 절정은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줄 지어서 호루라기 소리에 일제히 뛰고, 도착하마자 손 등에 도장을 받는 모든 과정은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받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모든 이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는 것도 매우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달리기 시합에서 1등, 2등 혹은 시험 성적으로 1등, 2등이 우리 인생의 순위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 사회적 평판이 나의 순위를 결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꼭 깨달길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음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우매한 것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우매한 자보다 나은 평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제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는 수많은 수고를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분명 더 나은 인생이 있습니다. 높은 등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서 바스러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서 합격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달리기 시합에서 몇등을 해보셨나요?

Q.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삶을 비판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2장>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